

## 장애

### 일하는 장애인 빈곤을 벗다 - 장애와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2023. 10. 6.(금) 13:00-15:30

주관: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배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대, 인권 보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줄어들면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심각한 불평등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은 바로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장애인 빈곤율은 42.2%로 전체 16.3%에 비해 2.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의 빈곤율은 2017년 40.4%, 2018년 41.5%, 2019년 42.2%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장애인의 빈곤율은 2017년 16.3%, 2018년 15.6%, 2019년 15.2%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4,246만 원으로 전체 가구 5,294만 원의 71.5%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중증 장애인으로 한정하면 50%가 채 안 되는 더 큰 소득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빈곤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 돌봄, 의료, 교육, 노동 등 다차원적인 불평등에 놓이게 되고 나아가 인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장애인들은 노동과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한받아 결과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되게 되고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한번 빈곤에 빠지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구조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빈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 때문만이 아니다. 장애인은 노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노동에 장애인들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문제를 그동안 공적소득과 사



회서비스 등의 복지 서비스의 확충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복지 서비스의 확충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수혜자로 만들었으며, 장애인을 시스템 상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결국 일정 생활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빈곤의 굴레 속에 머물게 만든다.

## 목표

최근 장애계에서는 시혜적 차원의 노동이 아닌 권리로서의 노동으로, 전통적인 노동의 개념을 바꾸는 노동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이하,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는 UN에서 선포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한 목표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실천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중증 장애인이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의 권리를 생산하여 비장애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 고용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기존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스템의 비인권적인 노동형태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장애인의 고용률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최저임금법 제7조]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는 장애인의 추정 임금은 37만 9622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더 큰 문제는 장애인이게 지급 가능한 임금 하한선이 없는 데다, ‘훈련 장애인’처럼 같은 일을 해도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도 이미 지난 2014년에 한국 정부에, “장애인이 최저임금 이하를 보상을 받고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작업장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제회의 : 장애>에서는 장애인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존엄을 누리면서 주체적 인간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해 1) 기존 비장애 중심/능력 중심의 노동 구조를 바꿔,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2) 장애인 스스로 빈곤과 불평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해외(스웨덴) 사례와 국내 장애인 빈곤 및 노동 영역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와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기관의 실무자 및 장애 당사자 등과 함께 현 시스템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겨레,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두번째로 빠르다〉, 2023. 4. 10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0.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2021.

중점 논의사항

1. 스웨덴 국영기업 삼할(SAMHALL)의 장애인 고용 및 노동에 대한 사례 확인
2. 국내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관한 현황 확인
3. 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 및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문제점 및 발전 방안 모색

